

2023년도 1학기

체코 프라하 University of Fine Art in Prague (AVU) 교환학생 방문기

2020151040 한혜원

프라하는 체코의 수도로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이지만 불타바강이 도시 중앙을 가로지르는 아름답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다.

내가 생활했던 여름학기(2월 중순 ~ 6월 말)의 프라하는 여름이 되어도 선선한 바람과 건조한 기후로 비교적 쾌적한 날씨였다.

1. 학교

학교생활은 되도록 학기 초의 OT에 참석하는 것을 추천한다. 다른 나라에서 온 교환학생들과 함께 학교 커리큘럼과 한 학기간의 스튜디오 스케줄과 수업에 따른 교실 위치 등을 안내 받으며 생활에 필요한 프린트(교통증 발급에 필요한 학생 인증 종이 등)를 받을 수 있다.

그 후, 학교 내 실기실과 다른 부지의 학교 건물도 직접 돌아다니며 소개 받고, 학교의 1층에 위치한 AVU cafe에서 학교 측에서 교환학생들을 환영하는 기념으로 식사를 대접하기도 해 친구들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본 학기에 수강한 과목은 Drawing 수업과 Painting 스튜디오, 그리고 판화수업이었다.

Drawing 수업은 주에 평일 4일에서 5일간 거의 매일 열리며 2~3명의 실제 누드 모델들을 섭외해 수업이 이루어 졌다. 한 학기당 출석을 기본 10회만 채우면 되고, 지각이란 개념없이 수업시간 내에 와서 바로 드로잉을 시작하는 자유로운 분위기이기에 출석이 힘든 수업은 아니다. 선생님들은 기본 인체 구조와 아카데미한 기술, 관찰법에 대해 조언해 주시기에 실험적인 드로잉을 원하는 학생들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오랜만에 하는 전통적인 드로잉이었기에 기본기와 선을 쓰는 것에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실제로 국내에서 매주 4일간 실제 누드 드로잉을 할 기회는 흔치 않기 때문에 교환생활 중 되도록 많이 출석하려고 했던 수업이기도 하다.

Painting 수업은 주에 한번 오전 미팅에 참석하는 것이 전부이다. 처음에 본인의 작업을 보여주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한 후에 개인 상담을 하는데, 그 후론 거의 모든 것이 자유에 가까웠다. 학기 말의 과제전의 출품작 제출일까지 완성해서 내야한다는 것만이 정해져 있고 재료, 주제, 크기 등 모든 것이 학생의 의사로 결정된다. 주마다의 미팅은 출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자율 참가이며, 개인적으로 내가 있던 반에서는 작업에 대한 크리틱보다는 학생들끼리 모여 정보교환 또는 잡담을 하는 시간에 가까웠다. 가끔씩 전시를 함께 보러가기도 하고 반에 따라서는 야외로 수업을 나가는 경우도 있다.

판화수업은 특히나 AVU가 자랑하는만큼 다양한 판화기법이 가능했다. 석판화와 아쿠아틴트부터 기계나 공간의 제한을 받아 일반 시설에서 하기 힘든 기법들을 시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하나의 기법을 정해서 작업을 시작하는데 본인이 여유가 된다면 다른 기법을 함께 써서 작업하거나 여러 기법을 따로 시도해볼 수 도 있다.

선생님들도 친절하신 편이시고 작업 중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이기에 처음 시도해보는 것이더라도 부담이 덜하다.

교환학생이 많이 듣는 판화수업을 제외하고 Drawing 과 Painting 수업은 주로 체코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이 말을 전혀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학교가 큰 편은 아니지만 시설에서 부족함을 느낀 적은 없었다. 또한 학교 자체가 예술학교라 자유로운 분위기가 강한데 오히려 즐긴다고 생각하는 편이 즐거웠다.

2. 삶

난 교환교에 내 등록정보를 넘기는 과정에 있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교환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근처의 다른 예술학교의 기숙사를 쓰지 못했다. 그렇기에 student republic이라고 하는 사설 학생 기숙사에 연락을 해 플랫을 구할 수 있었고, 내 방은 룸메이트, 플랫 메이트들과 함께 아파트를 공유하는 형식이었다. 그렇지만 가격 면에서 좋은 선택은 아니었기에 교환교에서 합격 메일이 오면 최대한 빨리 기숙사에 신청 메일을 넣는 것을 추천한다.

프라하의 비교적 작은 도시이기에 관광객으로서 둘러보아도 2일~3일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그만큼 주요 교통수단은 트램 또는 지하철인데 여기서 필요한 교통권을 프라하의 학생임을 입증하면 매우 저렴하게 3달권을 끊을 수 있다. 여기서 학생임을 입증하는 것은 학생증이나 OT날 개별적으로 나누어주는 식별번호가 적혀있는 작은 종이인데 그것을 들고 Laticka 사무실이 있는 지하철역에 교통권을 구매하면 된다. 따로 검표하지 않는다고 사지 않고 다니다 적발이 되면 1000크라운 이상의 벌금이 있기에 꼭 교통권을 사야한다.

핸드폰의 통신사 또한 학생임을 입증하면 매우 싼 가격에 무제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유럽 국가를 이동해서도 따로 유심을 구매할 필요 없이 데이터를 계속 쓸 수 있기에 매우 유용했다. 내가 이용한 것은 Voda fone이라고 하는 통신사였는데 이곳에서 학생 요금제를 하고 싶다고 하고 학생증과 여권을 보여주면 쉽게 등록이 가능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들도 학생할인이 있는 곳이 대부분이며 학교의 1층 게시판에 스튜디오 헤드나 선생님들이 하시는 개인전과 단체전의 정보도 많이 있기에 다양한 전시를 접할 수 있다.

프라하의 평화롭고 치안이 비교적 좋은 도시이며 유럽 국가에서 상상할 수 있는 여유로운 일상에 가까운 환경이다. 나 또한 내 주변 친구들에게 해외에 나갈 기회가 있다면 경험해보고 오라고 추천할 만큼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었기에 더욱 프라하에서의 기억들이 오래가길 바란다.